

“미식도시 순천, 숨은 맛집 찾아주세요”

28일까지 2024 순천미식주간 운영...이벤트 다채 음식 명인·기능장 체험 행사 등 음식 영화 상영도

순천시가 순천미식을 알리기 위한 ‘2024 순천미식주간’을 개최한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미식을 알리기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동원 일원에서 ‘2024 순천미식주간’이 28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순천미식회(맛집 선정, 영화상영 등) ▲체험·전시·마켓(지역명인, 순천미식과 가공품전시 판매) ▲현장 이벤트와 공연(SNS 후기 이벤트, 음식만들기 경연 등) 등으로 구성됐다.

“2024 순천미식주간”은 지난 20일 네이버, 구글, 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모든 부분에서 평점이 높은 20개 업소를 초청해 인증서와 인증패를 증정하는 행사로 시작했다.

앞서 시는 “2024 순천미식주간” 동안

순천의 다양한 맛과 음식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반 음식점 190개와 카페·베이커리 39개를 순천의 맛집으로 선정했으며, 이를 국가정원 관람객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명한 요리 작가인 박찬일 셰프가 순천대, 제일대, 효산고의 조리 관련 학생들과 함께 ‘로컬 청년, 요리로 얘기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찬일 셰프는 자신이 셰프가 될 수 있었던 경험과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를 한식에 접목시켜 설명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는 27-28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 동원 일원에서 순천 김순옥·신광수 명인과 조호훈 기능장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순천시가 미식주간을 맞아 네이버, 구글, 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평점이 높은 20개 업소를 초청해 인증서와 인증패를 증정했다. <순천시 제공>

관람객들은 명인들이 직접 만든 유 다. 또한 순천 대표 음식인 닭구이 밀키트와 신화정의 맛간장도 판매된다. 순천시는 관람객들을 도심권으로 유

입하기 위해 조식이 가능한 식당을 운영하고, 순천의 재미진 한상, 순천으로 떠나는 달콤한 빵 여행 등 테마별 음식도 전시된다.

현장 행사 외에도 미식주간에는 다양한 SNS 홍보 이벤트가 진행된다.

우선 빅데이터로 선정된 순천 맛집의 숨은 맛집을 찾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방문 후기를 업로드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순천의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고 후기를 올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일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오전그린아일랜드에서는 ‘라따뚜이’, ‘리틀포레스트’ 등 음식 관련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 시작 전에 OST 공연과 함께 순천미식주간 홍보 팝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순천의 맛을 알리고 ‘미식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자

고흥군, 국내 최장 연륙 인도교 ‘레인보우교’ 준공

총사업비 72억 투입·1.32km 규모...랜드마크 기대

고흥군이 국내 최장 연륙 인도교를 건설해 지역의 새로운 거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릴 때만 나타나

는 노들길의 불편함을 덜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를 조성하고자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 남양 우도 연륙 인도교는 총 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됐으며, 남양면 우도 섬마을과 육지를 잇는 바닷길 1.32km의 국내 최장 연륙 인도교다. 주민 의견수렴과 각종 검토용역·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22년 7월 착공, 1년8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남양 우도 연륙 인도교는 ‘희망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난간과 바다에는 무지개색을 칠해 우도 바다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며, 교량명을 ‘우도 레인보우교’로 명칭했다.

이번 레인보우교 준공으로 섬마을 주민들이 응급 상황 시에도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우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군민과 관광객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으며 아름다운 일몰을 구경할 수 있어 향후 고흥군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레인보우교 주변에 편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우도 레인보우교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중산 일몰과 어우러져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우도가 북부권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구례군, 감 재배 기술 심포지엄 개최

관련산업 발전·재배 기술 교육 등 농가 역량 강화

구례군은 25일 “지난 22-23일 산동면 The-K 지리산가족호텔에서 해외 감 전문가를 초청해 감 재배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과 전남농업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감 재배 농가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는 농가들의 재배 기술 역량 강화와 감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 감 전문가를 초청해 관내 농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초청한 오오하타 가즈야 박사는 일본 시마네현 농업기술센터 과수과, 특산개발과, 산지지원과 전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 재배 기술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오하타 가즈야 박사는 ‘감 재배의 기초-단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재배 기술교육과 구례지역 선도 농가 과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시기별 재배관리, 병해충과 생리장해, 과원 관리 요령 등 과수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전달했다.

박근규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례군 농업인이 선진기술을 배워 더 맛있는 감을 재배하는 데 활용하길 바란다”며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해 구례 단감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곡성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박차’

전시관·다목적복합센터 등 하반기 준공 예정

곡성군의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은 1827년(순조 27년)에 곡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을 기리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

지 총 1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년간 추진 중에 있다. 곡성군은 정해박해 발생지 인근에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곡성성당을 포함한 순례 코스를 연결함으로써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곡성군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해박해 육터성지에 위

치한 곡성성당 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을 건립, 곡성을 묘천리 336번지 일대에 다목적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건축물은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내실있는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의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자 순례길 코스 발굴 등 운영 콘텐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특별한 역사문화순례길로의 개발에

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재도 전국의 많은 순례객들이 곡성성당과 전원지를 찾아주고 있지만 이번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며 “더 많은 순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탁환 작가는 지난해 9월 정해박해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사랑과 혁명1·2·3’을 출간했으며, 이번에 한국가톨릭 문학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양경제청-금호폴리켄, 358억 투자협약

EPDM 물류창고 건설...신규 일자리 60개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금호폴리켄과 EPDM(기능성 고무 제품)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35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협약은 광양 황금 산업단지에 기능성 고무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완공 후 약 6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금호폴리켄은 국내최초 EPDM 제조사로서 1987년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현재 연간 22만톤의 EPDM을 생산하며 아시아 1위, 세계 3위

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판매 제품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 금호폴리켄은 충분한 출하공간 확보와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은 광양경제청, 전남도, 광양시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황금 산업단지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호폴리켄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2024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담양군, 30일까지 신청 마감

담양군은 25일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담양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지소재 읍·면사무소, 임업직불금 전화상

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9월에 확정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은주 산림정책과장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대상 임업인은 기한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105명에게 2억9천900만원을 지급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13곳 신규 모집

30일까지 접수...홈페이지 홍보·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여수시는 25일 “오는 30일까지 착한 가격업소 13개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단 ▲지역 평균가격 초과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여수시는 접수된 업소들의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 대해 민·관합동 현지실사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과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지방공공요금·소모품 등 중소기업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정 희망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하겠다”며 “지역 상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진선 기자